

세계문화유산 보호 나서는 전주 한지

市, 유네스코와 협약...분쟁지역 문화유산 소개 독자 제작
우수성 인정 받은 전주 한지 알려 글로벌 도시 도약 기대

전주시가 유네스코와 손잡고 한지를 활용해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전주시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 유네스코의 아프리카 사업국을 총괄하는 페민 에두아르도 마토코 사무총장보에게 말리 등 아프리카 분쟁국가에 보낼 한지 32개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향서’(LOI)도 체결했다.
전주한지로 제작된 족자에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교육협력 프로젝트의 내용과 말리 야스키아 무덤(Tomb of Askia) 등 인류가 지켜야 할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세계문화유산들이 소개됐다.
시가 기증한 전주 한지 족자는 유네스코를 통해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보내져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고대 예술품과 문화 유적지 등이 종교분쟁과 내전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주 한지는 이미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활용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면서 “한지의 세계화 노력을 꾸준히 해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난감 걱정 그만...이제 빌려쓰세요”

군산 장난감도서관 개관

군산에 장난감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고 8일 개관식(사진)을 했다.
장난감도서관은 1억5000만원을 들여

복지센터 1층(188㎡)에 조성됐다.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237종, 700여점의 장난감을 갖췄다.
군산시에 주소를 둔 5세 이하 영·유아 부모라면 회원으로 가입해 장난감을 빌려갈 수 있다. /군산=박금식기자 nogusu@

별빛 아래서 건듯...보성차밭, 겨울밤 빛으로 수놓는다



지난해 열린 보성 빛축제 전경.

내달 15일부터 한달간 이어져
주말엔 실내정원 판타지 공연도

보성차밭 빛축제가 다음 달 15일부터 한달간 이어지면서 녹차밭의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올해로 15회째인 보성차밭 빛축제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한 국자문화공원과 울포솔밭해변 등지에서 내년 1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 지역이 보성이란 이름을 갖게 된 지 천년이 된 것을 기념해 올해 빛축제 주제도 ‘천년 보성, 천송이 빛으로 피어나다’로 정했다.
다양한 색상의 전구로 연출한 차밭과 차밭 능선을 따라 비탈면에 꾸며진 화려한 영상이 축제 내내 펼쳐진다.
한국자박물관 광장에는 디지털 차나무도 설치해 차밭, 건물, 공원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경관을 연출한다.
더욱 확장된 은하수빛 터널, 실내정원



〈보성군 제공〉

특수조명, 레이저 빛 연출 등으로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빛 공간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불꽃, 음악, 레이저 조명이 한데 어우러진 공연, 실내정원에서의 판타지 공연 등도 펼쳐진다.
보성군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했던 빛축제를 유료화한다.
보성군민, 타 지역 만 7~18세·65세 이상 관람객, 단체, 군인(직업군인은 제외)은 3000원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야 축

제장에 입장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다른 지역민은 5000원권을 구매해야 한다.
관람객이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축제 현장이나 상가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상품권 입장은 유료 같지만 축제장뿐만 아니라 보성지역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무료나 마찬가지”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부안 예술인들의 잔치’ 부안예술제 내일 개막

부안지역 예술인들의 잔치인 제16회 부안예술제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16회째인 행사는 ‘행복한 부안 예술로 가꾸자’를 주제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국악·미술·사진·문인협회 소속 전시가 열리며 수공예 파우치 만들기, 도자기컵

그림 그리기, 부래만복소원탑 완성하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부안예술회관에서는 포스댄스컴퍼니의 ‘판타스틱 부안’ 댄스컬도 선보인다.
한국예총 부안지회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 온 군민들이 소통하며 화합하는 예술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포스코, 車산업 품질경영시스템 전환 인증

국내 철강사 최초 획득

포스코가 국내 철강사 최초로 자동차 산업 품질경영시스템 전환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가 획득한 국제인증은 국제자동차산업표준기구(IATF)의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관련 최신 품질 표준으로, 지난달

광양제철소 등에서 진행된 영국 로이드인증원의 규격 전환심사를 거쳐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짧은 시간에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사 명성을 확고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여수~거문도 여객선 감편에 뿔난 주민들

편도 운임 50% 할인도 중단

여객선 선사 일방적 감편 반발

여수시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겨울철을 맞아 하루 2편에서 1편으로 감편 운항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거문도 주민 50여명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거문도 항로의 여객선 선사가 일방적으로 운항 편수를 줄였다”면서 겨울철에도 하루 두차례 운항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사는

8월부터 일방적으로 출항민에 대한 운임 지원을 중단했다”고 지적한 뒤 “운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겨울에도 매일 두차례 운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선사 측은 일방적으로 하루 1편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선사 측은 그동안 출항민에 대해 편도 3만6000원의 운임을 50% 할인해줬으나 8월부터 운임 지원을 중단했다.
이 전사는 여수와 거문도에 300인승 규모의 여객선 2척을 운항 중이며 정기 수리를 위해 12월부터 하루 1편으로 감편 운항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원도 익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판선·별장적합 2억4천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유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계 2칸과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10전환 4억

투자 · 매도 · 교환

- 담양 창평면 소재지 대지 등 10235㎡ 요양병원 등 최적 30억
-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기관적합 6억2천
- 완도군 금당면 가회리 땅 2013㎡(609평) 조용한 생활에 적합 하루에 여객선 4회다닐 육지에서 40분 3300만원
- 양계장 허가부지 창흥읍 15000여㎡ 축사하기도 있음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땅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는 230만원씩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사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